

# 독립 정신

그러면 그 문장(미군의 포고령이나 소련군의 호소문)의 형식과 문투와 언어만 보고 소련군은 해방군이었고, 미군은 점령군이라는 논리가 성립되는 것일까? 그건 아니다. 이는 당시 미군과 소련군의 정치장교의 수준과, 수많은 위성국 통치의 경험을 가진 소련군과 미군 장교의 기술의 차이에서 온 것이었다. 남북한의 진입 당시 소련군에는 슈티코프, 로마넵코, 레베데프 등 백전노장의 장군급 정치국원이 배속되어 순무(巡撫)하고 있었다. 소련군은 해방군이 아니라 엄혹한 점령군이였다.

- 머릿글에서



##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으로 되새기는 광복 76주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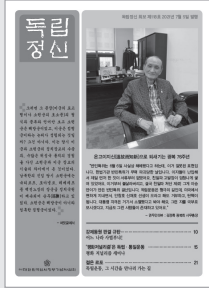
“반민특위는 6월 6일 사실상 해체됐다고 하는데, 이거 잘못된 표현입니다. 헌법기관 반민특위가 무력 파괴당한 날입니다. 이자들이 난입해서 제일 먼저 한 짓이 서류부터 없앴어요. 친일파 고발장이 엄청나게 쌓여 있었어요. 이거부터 불살라버리고, 결국 친일파 처단 제로! 그게 이승만이 만든 반민특위 결산입니다. 독립운동은 형극의 길인데, 미국에서 편하게 지내면서, 안창호 신채호 선생이 오라고 해도 거부하고, 탄핵이 됩니다. 대통령 자격은 거기서 소멸했다고 봐야 해요. 그런 자를 국부로 모시겠다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 권두인터뷰 : 김정록 광복회 사무총장

강제동원 판결 규탄.....	10
어느 나라 사법부냐!	
‘평화저널리즘’은 독립·통일운동 .....	15
평화 저널리즘 세미나	
젊은 르포 .....	21
독립운동, 그 시간을 만나러 가는 길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회보 「독립정신」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관지 「독립신문」의 자주독립정신과 전통성을 이어받고자 합니다.



발행인 | 김자동  
편집인 | 원희복  
편집위원 | 곽태원, 박덕진, 권혁주, 이상혁  
편집 · 디자인 | 대관인쇄

우 03173 / 서울특별시 중로구 새문안로 5길 19 로얄빌딩 602호  
(사)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TEL : (02)3210-0411 | FAX : (02)732-2870 | E-mail : kpg19197837@daum.net  
홈페이지 : kopogo.kr

- 03 **이 달의 독립운동** 주시경 선생 국어연구학회 창설(1908.8.31) | 편집부
- 04 **머릿글** 해방정국, 미소는 점령군인가 해방군인가? | 신복룡
- 06 **권두 인터뷰**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으로 되새기는 광복 76주년 | 편집부
- 10 **강제동원 판결 규탄**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부인하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을 외면한 재판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 민족문제연구소 등
- 13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유감** 효창원부터 참배하라 | 박덕진
- 15 **평화 저널리즘 세미나** ‘평화저널리즘’은 독립 · 통일운동 | 원희복
- 19 **김가진 선생 서훈 신청** ‘친고종’-‘외교관’-‘개화파 관료’에서 독립운동가로 | 편집부
- 21 **젊은 르포** 독립운동, 그 시간을 만나러 가는 길 | 김희준
- 24 **청년에게 듣는다** 1920년대 독립군을 기억하다, 영화 <봉오동전투> | 배현서
- 26 **우리 고장의 독립운동** 함안의 독립운동 : 3·1운동을 중심으로 | 편집부
- 30 **임정서거** 『나철 평전 : 독립운동의 선각』  
『대한민국 임시정부 : 반만년 역사의 제1 대사건』  
『역사의 법정에 선 법』  
『신흥무관학교』 | 편집부
- 32 **독립정신 이모저모** | 편집부
- 34 **회원동정** | 편집부
- 36 **서대문형무소** 문상익과 서대문형무소 | 편집부

## 주시경 선생 국어연구학회 창설(1908.8.31)



1908년 8월 31일, 한헌샘 주시경(1876~1914) 선생은 김정진 선생 및 당대 지식인들과 함께 민족의 문맹을 깨치고 나라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국어연구학

회(현 한글학회)를 창설했다. 국어연구학회는 주시경 선생을 중심으로 국어강습소를 운영하며 한글 보급에 앞장서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활동을 했다.

앞서 1896년 주시경 선생은 서재필과 함께 독립협회에서 활동하며 국민계몽운동에 앞장서고, 1898년 『국어문법』을 완성했다. 을사늑약으로 국권을 빼앗긴 이후, 주시경 선생은 한글 보급과 민족의식 고취 활동에 더욱 매진하였다. 1906년 학생용 교재 『대한국어문법』 발간, 1908년 국어문법에 관한 연구서 『국어문전음학』 간행, 1909년 초등국어교과서 『국문초학』 발간, 1910년 『국어문법』 발간 등 한글 체계 정립을 위해 왕성한 활동을 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글의 연구를 조직화하고자 국어연구학회를 1908년에 창설하게 되었다.

주시경 선생의 주도로 창설된 국어연구학회는 1921년 단체명을 조선어연구회로 변경하나 조선총독부에서 동명의 관변 어용학술단체를 만들자, 1931년 총회를 열어 단체명을 조선어학회로 바꾸었다. 이후 1949년 10월 한글학회로 이름을 바꾸고 현재까지 지속되었다.

주시경 선생은 경술국치 이후 『국어사전』 편찬에 착수하고 1914년 『말의 소리』를 간행하였으나 1914년 요절하여, 그의 숙원사업인 우리말 사전 편찬은 후배들이 이어받았다.

그의 뜻을 이어받은 후배들은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큰 위기를 맞았다. ‘조선어학회 사건’은 1942년 일제가 조선어학회 회원과 관련자들을 치안유지법으로 몰아 탄압한 사건이었다. 우리 민족의 전통과 문화를 말살하려 한 민족말살통치기 아래에서 일제는 우리말 사전을 편찬하려는 조선어학회를 정치사상범으로 간주하고 탄압하였다. 당시 함흥재판부는 ‘고유 언어는 민족의식을 양성하는 것이므로 조선어학회의 사전 편찬은 조선민족정신을 유지하는 민족운동의 형태’라는 이유에서 치안유지법의 내란죄를 적용해 우리말 사전 편찬은 중단되었다.

해방 후 주시경 선생의 뜻을 이어받은 국문학자들이 다시 사전 편찬 작업에 착수한 결과 1957년 10월에 『큰사전』이 완성되어 우리말과 민족정신을 되찾았다.

## 해방정국, 미소는 점령군인가 해방군인가?



신복룡  
전 건국대학교 석좌교수

한 나라의 국가 경영에서 역사를 잇는 것도 비극이지만, 역사 논쟁이 과열되어 국론이 분열되고, 진영의 논리로 비화하는 것은 서글픈 일이다. 역사는 앞으로 가는데, 뒤만 돌아보는 것은

앞의 걸림돌을 보지 못하는 위험과 함께 동력을 잃고 퇴행할 수 있다. 그러기에 단테가 베아트리체의 손을 잡고 연옥에 들어갈 때 수문장 피에트로가 “뒤돌아보는 이는 되돌아가리라.”(『신곡』 연옥편 9:130)고 충고했다.

현재 우리 사회를 강타하고 있는 논쟁, 곧 해방정국에서 미국과 소련은 점령군인가, 해방군인가에 대한 논쟁을 보노라면 실익이 없이 국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은 간단하다. 소련과 미국 모두 일본의 식민지에 남은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위한 점령사령관(Commander of Occupational Army in Korea)이었다. 소련이 진정으로 북한의 해방군이 있다면, 남한이 정부 수립을 할 때까지 북한의 해방을 미루다가 남한보다 35일 늦게 1948년 9월 9일에 정부 수립을 선포할 이유도 없었고, 그 3년 동안에 두 번씩이나 김일성과 박헌영을 모스크바로 불러 면접 시험을 치러야 할 이유도 없었다.

당시 한반도에는 75만 명의 일본인이 머물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35만 명이 무장하고 있었다. 무장군이 이렇게 많았던 것은 관동군이 최후의 항전을 위해 남진했기 때문이었다. 미국과 소련은 전쟁이 적어도 1946년 7월까지 계속할 것이며, 본토군이 항복하더라도 관동군은 항전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무장 해제가 주요 관심사였지 한국의 해방은 군인들의 관심사에서 빗겨 있었다.

그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이른바 “포고령”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다. 나는 이 포고령의 비교 분석을 처음 발표하여(1987) 논란을 불러일으킨 장본인이기에 이에 대하여 대답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 무렵 나는 분명히 소련군의 포고령이 우호적이었으며, 미군의 포고령이 고압적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그 글의 이어진 부분에서 그것은 문장[修辭]의 문제였지 양쪽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그런데 마침 그 뒤에 이어진 교과서 파동에서 진보적 필자들은 나의 진심과 관계없이 앞부분만을 인용한 것을 보고 나는 다소 당황했다.

문제의 핵심은 문투가 아니라 진입군과 작성자의 성격이었다. 당시 미국의 포고령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하지 장군의 참모들이 북상하는 함상에서 9월 2일에 작성하여, 9월 8일에 인천에 입항하기 하루 앞서 9월 7일에 쌍발 수송기로 서울

인근과 대도시에 공중 살포했는데, 철필 등사(가리방)였으며, 문장은 일본어였다. 24군단에는 이를 작성할 만큼 한국어에 능통한 장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일본어가 국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이 포고령은 일본어라는 불쾌감과, 그 고압적인 문장에 마음을 상한 것은 사실이었다.

또 다른 포고문은 태평양사령관 맥아더의 이름으로 발표된 9월 7일자 포고문인데, 스스로 “동양의 시저”라고 생각한 그답게 참으로 “맥아더다운” 문장으로, 미군은 점령군임과 금지 사항을 엄혹히 적시했다. 문장은 영어로 썼기 때문에 식자들 사이에 알 만한 사람만 읽었다. 법조문처럼 전문 6조로 된 이 “포고령”은 소련군 25군사령관 치스차코프 장군의 이름으로 배포한 “호소문”과는 격조가 달랐다. 그 호소문은 한글 경어로 북한 주민에게 배포되었다.

그러면 그 문장의 형식과 문투와 언어만 보고 소련군은 해방군이었고, 미군은 점령군이라는 논리가 성립되는 것일까? 그건 아니다. 이는 당시 미군과 소련군의 정치장교의 수준과, 수많은 위성국 통치의 경험을 가진 소련군과 미군 장교의 기술의 차이에서 온 것이었다. 남북한의 진입 당시 소련군에는 슈티코프, 로마넵코, 레베데프 등 백전노장의 장군급 정치국원이 배속되어 순무(巡撫)하고 있었다. 소련군은 해방군이 아니라 엄혹한 점령군이었다.

그와는 달리 미군은 저들에 필적할 만한 정치장교를 갖추지 못했고, 한국에 남아 있던 선교사의 아들들을 긴급 차출하여 군속으로 만들어 고

용했는데, 그때는 이미 포고령이 발표되어, 한국인들이 생각하기에 이는 “해방”이지 “독립”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뒤였다. 하지 사령관은 결코 포악한 사람은 아니었고, 한국의 발전과 독립을 위해 진심으로 고민한 인물이었다. 그가 거친 성격의 인물이었음은 사실이고, 미국 육군사에서 “군인 중의 군인”이라는 칭호를 들었다. 일리노이주의 고아원 출신인 그는 유소년기에 너무 거칠어 고아원 보모가 성질 좀 부드러워지라고 가운데 이름을 “Reed”(갈대)라고 지어 주었다.

그런 성격의 사령관 밑에 조력자가 필요하자 미국은 뒤늦게 1946년 초에 버취를 하지의 정치고문으로 임명했는데, 35세에 중위로, 하버드 출신인 그는 마치 신생국 창설의 주역인 것처럼 행세하였으나, 슈티코프 상장의 적수가 되지 못했다. 이런 점에서 미국과 소련의 대한 정책의 본질을 설명하자면, 어느 쪽의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소련의 노회함과 미국의 서툰 대결에서 미국이 비본질적인 결함으로 상처를 입은 것이다.

자, 그러니 어떻게 이 갈등을 풀어야 하나? 양쪽 주장에 다 할 말이 있고, 모두 결함이 있다. 이 싸움은 누가 이길 수도 없고, 누구에게도 득책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덮고 멈추어야 한다. 잊을 수 없지만, 역사는 화해를 가르치는 것이지 적개심의 도장은 아니다. 잘못이 있다면 당시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못한 탓이었고, 그 허물은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

\* 이 글은 2021년 7월 9일자 『중앙일보』에 게재된 시론을 확장한 것임

##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으로 되새기는 광복 76주년

### - 김정록 광복회 사무총장 인터뷰 -

편집부



김정록 본회 부회장이 광복회 사무총장에 취임한 지 2년이 지났다. 2년 전 김원웅 신임 광복회장이 사무총장을 맡아달라고 부탁했을 때 김 부회장은 거절했다. 임시정부기념사업회에 소속감을 지닌 터에, 광복회 활동 경험도 없어서 역량 부족을 이유로 들었다. 김원웅 회장은 포기하지 않고 김자동 회장과 함께 김 부회장을 만났다. '김정록 부회장은 반민특위 위원장님 아들이니까 훈육을 철저히 받은 그 점을 믿습니다'고 설득하

는 데서야, 수락하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

“누가 날 헐뜯으려 해도 헐뜯을 게 없잖아요? 내가 10원짜리 한 장도 관계를 안 해요. 부정은 용납하지도 않고, 광복회에서 반민특위 위원장을 상당히 비중 있게 생각해요. 아버지의 무게감 덕분에 내가 처신을... 가서는 안 되는 길은 가지를 않으니깐요.”

김정록 사무총장과 임시정부기념사업회의 인연은 오래됐다. 설립 때부터다. 그런 분이 불일이 있으면 꼭 점심을 마치고 들른다. 오죽하면 김자동 회장이 제발 점심 먹지 말고 오라고 신신당부를 했을까. 하지만 그가 임시정부기념사업회에 얼굴을 비치는 시각은 어김없이 오후 1시가 지나서다. 한 푼이라도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인데, 그만큼 “돈이 옆으로 새는 걸 아주 싫어하는 쪽”이다.

#### 반민특위 위원장 관사에 들이닥친 이승만

김정록 사무총장은 선친 김상덕(金尙德) 반민특위 위원장과 성정뿐 아니라 외모도 똑 닮았다는 말을 듣는다. 첫 만남 자리에서 김자동 회장

이 먼저 알아보더라고 한다. “소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尙) 자 덕(德) 자 어르신 아드님이시지요?”

세속적으로 따지면, 김 사무총장은 부모덕을 전혀 입지 못한 쪽이다. 중국 난징에서 태어난 그는 이역만리 남의 땅에서 어머니를 일찍 여의었다. 부친은 보름에 한 번 겨우 짬을 낼 형편이어서, 엄마를 잃은 어린 3남매는 나무에 올라 과일을 따고 땅을 뒤져 고구마를 캐서 주린 배를 채웠다. 해방 후에도 3남매의 고난은 그치지 않았다. 반민특위 위원장 아버지를 둔 ‘죄’로 연좌제에 묶여 친일경찰의 분풀이 대상이 된 그는 모두가 피하는 험한 막일을 찾아 떠돌아야 했다. 그렇게 험한 꼴을 당하며 살아야 했으면서도, “아버님의 무게감 덕분에 처신을 바르게 했다”고

#### 김상덕(金尙德, 1891~1956)



경북 고령 출신. <2·8독립선언>의 주역이다. 조선독립청년단(朝鮮獨立靑年團) 대표로 선언 직후 체포되었고, 출옥 후 상하이로 망명해 1922년 1월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동방혁명대표자회의에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 정의부(正義府)에 참여했으며, 김원봉과 함께 민족혁명당을 창당하고, 임시정부 국무위원 문화부장으로 활동했다. 환국 뒤, 고령에서 제헌의원에 당선, 1948년 10월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 위원장으로서 친일잔재 청산에 진력하다가, 이승만정권의 모진 탄압을 받았다. 한국전쟁 때 납북되었으며, 1990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수여되었다.

감사하며 선친을 사무치게 그리워하는 노인의 내면을 젊은 세대는 이해할 수 있을까.

이승만 정권의 사주를 받은 친일경찰이 반민특위(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를 습격하기 며칠 전, 당시 필동3가에 있던 반민특위 위원장 관사로 대통령이 오늘 방문한다는 경무대 전화가 왔다. 순식간에 경무대 병력이 관사를 둘러싸더니 반민특위 경호팀을 내쫓았다. 그때 김정록 사무총장은 중학생이었다.

“아버지가 우리더러 방에서 꼼짝 말고 나오지 말라고 하세요. 응접실에서 이승만과 만나 얘기 하는데, 적당히 하고 반민특위 기간 끝나면 정부에 들어오라는 거죠. 임정에서 문화부장 했으니 문교부장관 하겠냐고 해요. 아버지가 화가 많이 났죠. 임정 초대 대통령을 했던 분이 지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느냐고요. 절대 안 됩니다. 대통령이 생각을 바꾸십시오. 이승만이 툭툭 부어서 돌아갔어요.”

그 뒤의 일은 모두가 아는 대로다. 김 사무총장의 기억에 따르면, 반민특위 설치 직후 이승만은 신익희 국회의장과 김상덕 반민특위 위원장을 경무대로 불러 살살 하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친일파들더러 국방과 치안의 기술자라면서, 동란이 터지자 가장 먼저 도망간 게 그 기술자들이었다.

“반민특위는 6월 6일 사실상 해체됐다고 하는

데, 이거 잘못된 표현입니다. 헌법기관 반민특위가 무력 파괴당한 날입니다. 이자들이 난입해서 제일 먼저 한 짓이 서류부터 없앴어요. 친일파 고발장이 엄청나게 쌓여 있었어요. 이거부터 불살라버리고, 결국 친일파 처단 제로! 그게 이승만이 만든 반민특위 결산입니다. 독립운동은 형극의 길인데, 미국에서 편하게 지내면서, 안창호 신채호 선생이 오라고 해도 거부하고, 탄핵이 됩니다. 대통령 자격은 거기서 소멸했다고 봐야 해요. 그런 자를 국부로 모시겠다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 미군 DDT 가루 뒤집어쓰고 밟은 우리 땅

김정록 사무총장은 충칭에서 해방을 맞았다. 그의 나이 열두 살이었다. 갑자기 “만세! 만세!” 외치면서 어른들이 난리더러라는 게다. 얼싸안고 춤을 추더니, 또 펑펑 울고... 어린 눈에 헛갈렸다고 한다. 좋아서 우는 건지, 나빠서 우는 건지... 그날이 “우리나라가 일본을 물리치고 나라를 되찾은” 8월 15일이었다. 임정 가족은 장개석 정부가 징발해준 버스 열 대에 나눠탔다. 떠나기 전에 먹은 음식이 기름한 모양의 떡을 기름에 볶은 중국식 ‘떡국’이었다니까, 광복을 맞고서도 다섯 달을 더 충칭에 묶여 있던 셈이다. 상해로 가는 도중 한구(漢口)에 일주일 머물렀다.

“거기가 민족혁명당이 조선의용대를 창설한 곳이에요. 교포가 많이 살았어요. 서로 임정 가

족들을 말겠다고 나섰어요. 상 차리는 거 보니까 정성을 다했더라고요. 넉넉해 보이지도 않았는데... 그게 동포애죠. 어른들이 고기는 다 놔두고 시벨건 배추, 김치부터 집더니 눈물을 막 흘려가며 드세요. 어떻게 된 거지? 나는 생전 처음 먹어보는 매운맛,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그 눈물을 이해하는 데 10년이 걸렸어요.”

미국은 임정을 정부로 인정하지 않았다. 임정 가족은 숯계 난민 취급이었다. 상해에서 미군 LST를 타고 부산에 도착한 게 1946년 3월 7일. 배에서 내린 그들을 맞이한 건 동포의 환대가 아니었다. 김정록 사무총장이 자란 충칭은 고온다습한 날씨다. 미군 DDT 가루 뒤집어쓰고 밟은 우리 땅의 첫인상은 “축다”는 것이었다.



“제가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독립운동한 후배가 독립운동한 선배 부고를 받고 찾아갔어요. 예를 마친 다음에, 유언 남긴 게 있는지 물어봤더니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유언 내용이, 앞으로 우리 가문에는 절대로 독립운동을 내놓지 마라, 미국 편에 서고 왜놈이 다시 들어오면 앞잡이가 되어서 나라 팔아먹는 짓에 집중하라, 그런 유언을 남겼더라고요.”

어찌 진심이었을까. 독립한 나라 돌아가는 꼴이 자손들에게 부끄럽고 미안해서 반어법으로 토해낸 마지막 심경이었을 것이다. 김정록 사무총장은 이 기막힌 일화를 전하면서, 광복 76주년에 젊은이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했다.

“일제가 부추긴 배금사상에, 나라 팔아먹고 받은 돈으로 눈밭을 사서 호의호식하던 자들이 득세하고, 그 이후 갑작스런 경제성장 영향도 있어서, 좋은 풍습들이 사라져 가고 있어요. 우리 후대에게 지금 꼭 내가 짊어지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꼰대’라는 말이 정치에서 풍파를 일으키고 있어요. 원래 장유유서(長幼有序)는 나이 적은 사람은 무조건 윗사람 따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에 따른 예절이에요. 선대의 좋은 거를 받아들여서, 젊은 사람들이 새로운 거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세상을 조화롭게, 아름답게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부인하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을 외면한 재판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2021년 6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김양호 부장판사)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하는 판결을 내렸다.

해방 이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일본과 한국의 법정에서 자신들의 인권회복과 역사정의의 실현을 위해 투쟁을 멈추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기나긴 좌절과 고통의 시간을 견디며 투쟁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일본의 전쟁책임과 식민지배 책임을 묻는 투쟁이 피해자들의 존엄을 지키고 최소한의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피해자들은 패소를 거듭하면서도 투쟁을 멈추지 않았고, 한국과 일본의 수많은 시민들은 피해자들과 손을 잡았다. 그리고 마침내 한일 시민사회의 지난한 투쟁은 지난 2018년 역사적인 대법원 판결로 소중한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

대법원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의 성과를 반영하여 식민지주의의 극복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을 가로막아 온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성격을 분명히 하여 ‘65년 체제’의 극복을 선언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실현한 역사적인 판결로 자리매김 되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하면서 ‘식민지배가 불법이라는 주장은 국제법상 인정받은 적이 없고,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은 일괄처리 되었으며 피해자들의 권리 행사는 제한된다’면서, ‘서세동점의 제국주의 시대에 강대국의 약소국 병합이 국제법상 불법이라는 주장은 국제사회에서 실정법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2018년 대법원 판결은 국내법적인 해석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는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명확히 선언한 대법원 판결을 의

도적으로 폄훼한 것일 뿐만 아니라 식민주의의 극복이라는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왜곡된 역사인식에서 비롯한 판단으로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에 다름아니다.

또한 판결은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을 위해 한일 시민사회가 수십 년 동안 쌓아올린 강제동원 소송투쟁의 법적, 사회적, 역사적 성과와 의미도 부정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줄기차게 식민지 지배, 전쟁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정해 왔다. 재판부가 판결에서 사례로 든 ‘니시마쓰(西松)건설 강제동원 사건’의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2007년 4월 27일)은 일본 사법부가 전쟁책임을 회피하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하여 만들어낸 대표적인 논리이다. 즉, 한국과 중국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소송이 잇따르자 일본 정부와 사법부는 ‘개인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지만, 재판으로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는 논리를 만들어 법적 책임을 회피해 온 것이다.

결국 니시마쓰 판결로 피해자들은 강제동원의 피해 사실을 인정받았지만 일본 법정에서 재판을 청구할 길이 영원히 막혀버리고 말았다. 이에 피해자들은 부득이하게 한국으로 무대를 옮겨 지난한 법정투쟁을 전개하였으며 마침내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거두게 된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부정하고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재판받을 권리마저 가로막았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가 받아들여져 향후 제기될지도 모르는 국제재판에서 패소하게 될 경우에 “대한민국 사법부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되고, 이제 막 세계 10강에 들어선 대한민국의 위신은 바닥으로 추락하며, 여전히 분단국의 현실과 세계 4강의 강대국들 사이에 위치한 지정학적 상황에 놓여 있는 대한민국으로서의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공유하는 서방세력의 대표국가들 중 하나인 일본국과의 관계가 훼손되고 이는 결국 한미동맹으로 우리의 안보와 직결되어 있는 미합중국과의 관계 훼손으로까지 이어져 헌법상의 ‘안전보장’을 훼손하고 사법신뢰의 추락으로 헌법상의 ‘질서유지’를 침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우리는 왜 재판부가 법적 판단을 넘어 정치 외교 안보 등의 문제를 과잉해석해가며 궤변에 가까운 논리를 강변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어떻게 이런 사대적이고 기상천외한 발상을 서슴지 않고 판결문에 담을 수 있단 말인가?

2013년 강제동원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 일본 경단련 등 경제 4단체는 ‘한반도 출신 징용공 등의 청구권 문제는 앞으로 한국에

대한 투자나 비즈니스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고, 한일 경제관계를 훼손시킬 가능성이 있어 깊이 우려하고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2018년 10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아베 정부는 '국제법을 위반한 있을 수 없는 판결이다. 일본 정부는 의연하게 대처하겠다.'며 수출규제를 시작했다.

박근혜의 청와대와 외교부, 양승태의 사법부, 피고기업을 대리한 김앤장은 피해자들의 목숨을 대가로 한 사법농단을 통해 의도적으로 판결을 지연시켰고, 그 사이에 수많은 피해자들이 세상을 떠났다. 당시 박근혜는 "강제징용 피해 배상이 확정되면 나라 망신"이라며 사법농단을 직접 지시했다. 양승태를 비롯하여 사법농단을 주도한 법관들은 아직도 반성은커녕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며 처벌을 피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사법농단의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처벌, 그리고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일본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는 한편 피해자들의 당연한 권리행사가 국가의 안전보장을 해친다며, '인권'보다 '국익'과 '국격'을 앞세우는 퇴행적인 역사인식을 그대로 드러냈다. 사법부 본연의 임무는 피해자의 인권을 외면하고 왜곡된 역사인식으로 나라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피해

자의 인권회복을 위해 오로지 헌법정신에 따라 판결해야 하는 것임을 다시 한 번 명심해야 할 것이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2015년 일본군'위안부' 한일합의는 박정희 군사독재와 박근혜 정권이 '국익'과 '국격', '국가안보'와 '한일관계'라는 미명 아래에 피해자들의 '인권'을 무참히 내팽개친 외교적 참사로 역사에 기록되었다. 이번 판결도 이와 결을 같이하는 것으로 역사의 엄중한 평가를 면치 못할 것이다.

역사의 진전을 가로막고 이를 다시 역행시키려는 도발은 항상 있어왔다. 대법원의 승소 판결에도 일본 정부와 피고기업은 사죄와 배상은커녕 2년 7개월이 지나도록 한일관계의 파탄을 위협하며 어떠한 책임도 다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여기에 굴하지 않을 것이며, 지난 수십 년간의 연대투쟁을 멈추지도 않을 것이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회복과 역사정의 실현이 불가역적으로 관철될 그 날까지 우리는 항상 그들과 함께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명확하게 밝혀둔다.

2021년 6월 8일

민족문제연구소 · 식민지역사박물관 ·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 효창원부터 참배하라



박덕진  
분회 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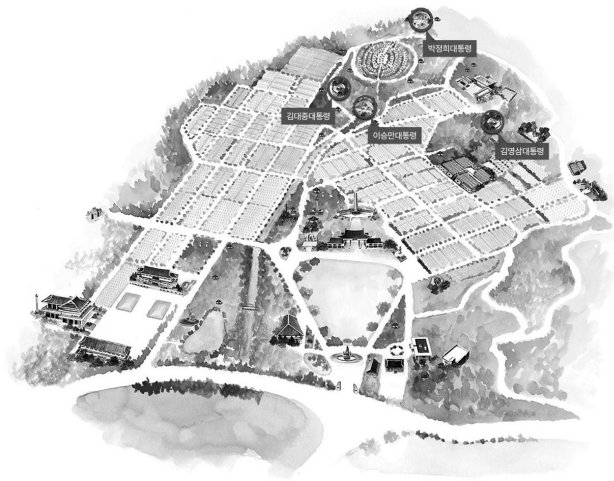
베수비오 화산 폭발에 사라진 폼페이, 그런 사건이 서울에서 일어났다고 가정해보자. 1천7백년 동안 화산재에 묻혀있던 서울을 먼 훗날 고고학자들이 발굴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 동작동 인근을 발굴하던 학자들은 144만 평방미터의 거대 분묘군을 발견한다. 5만이 넘는 유해가 안장된 곳이다. 고고학자들은 눈에 띄는 무덤 하나에 주목한다.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한, 가장 큰 규모의 무덤이다. 장기판의 왕처럼 전체를 굽어보며 위엄을 과시한다. 여기가 최고 권력자가 묻힌 곳이라고, 학자들은 추정한다. 분묘군 공간 구성이 위계질서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분묘군은 '국립서울현충원'이다. 그 무덤의 주인은 한때 '다카키 마사오'라는 일본 이름을 가졌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다.

새해 원단과 현충일, 대통령과 정부·국회 인사들은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다. 비단 이때만이 아니다. 당 대표나 대선 후보로 선출되어도 이들은 동작동을 찾는다. 이곳에서 대한민국의 공적 가치를 구현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묵념을 올린다.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공헌한 이들의

정신을 기린다. 그러나 박정희 전 대통령을 정점으로 권위의 수직계열화가 이루어진 이곳, 대한민국 최초 국립묘지에 중심적 권위를 부여하는 일은 이제 어렵다. 아니, 멈춰야 한다.

동작동 국립현충원은 이승만 정부 시절인 1956년 대통령령 1144호 '군묘지령'을 근거로 시작되었다. 안장 자격은 군인과 군과 관계된 사람들로 엄격하게 제한했다. 시작은 국군묘지였다. 그러다 이승만 대통령이 같은 시기에 이동녕·김구 등 임시정부 요인들이 안장된 효창원에 운동장을 지으며 논란이 일었다. 심산 김창숙과 야당 의원들은 효창운동장 건축을 격렬히 반대했다. 효창원이야말로 추모의 장소가 되어야 하며, 운동장 건축은 친일분자의 순국선열 모독이라는 것이었다. 이 논란은 국군묘지 안장 대상자에 '순국선열'을 추가한 이후에 잦아들었다. 이후 1965년 국군묘지가 '국립묘지'로 명칭을 바꾼 배경이기도 했다.

같은 해인 1965년 이승만 전 대통령 안장은 이 국립묘지가 '권력 공간'으로 변질된 최초의 계기였다. 순국선열 등 다른 안장자들은 국가원수보다 공간적으로 아래에 위치해야 했다. 위계의 수직계열화가 발생한 것이다. 이런 권위 질서의 구현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안장으로 완성된다. 국립묘지 가장 높은 곳에, 가장 넓게 자리잡은 것




이 박정희 묘역이다. 친일과 반공주의, 군사독재를 하나로 수렴한 인격체가 박정희였고, 한국 현대사를 질곡으로 몰아넣었던 어두운 역사가 그의 묘역에서 신전을 구축했다. 국립서울현충원 참배가 청산해야 할 역사의 유령을 경배하는 일이 되는 이유다.

대한민국의 공적 가치는 독립·호국·민주·사회공헌 등의 범주로 나뉜다. 그 각각이 독자적인 가치를 지니는 것은 물론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존중되는 공적 가치는 사실상 '호국', 다른 말로 하면 '반공·군사주의' 하나에 불과하다. '반공·군사주의' 옆에 독립·민주·사회공헌이 들러리로 존재하는 것이 대한민국 보훈의 실상이며, 그 극명한 현실태를 볼 수 있는 곳이 현충원이다.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한 백선엽이, 12·12 군사반란 및 5·18 내란의 안현태

와 4명의 장군들이 현충원에 묻히는 이유다. 반공·군사주의는 반민족행위자와 반민주행위자들에게 이렇게 면죄부를 발급한다. 이렇게 일그러진 공적 가치질서의 중심, 그곳이 국립서울현충원이다.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국가이념을 구현한 곳은 현충원이 아니다. 그곳은 차라리 해방 후 환국한 임시정부가 직접 조성하고, 이동녕·김구·조성환·

차리석 등이 묻힌 효창원이다. 헌법전문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효창원에는 또 이봉창·윤봉길·백정기 의사가 묻혀있다. 안중근 의사의 허묘도 있다. 새해 원단에 정치인들이 제일 먼저 참배해야 할 곳은 국립서울현충원이 아니라, 이곳 효창원이다.

올해 안에 여야 대선 후보들이 결정된다. 각 정당의 후보들은 독립·호국·민주·사회공헌 등 대한민국의 공적 가치를 위해 희생·공헌한 이들을 기리는 참배 행사로 대선 행보를 시작할 것이다. 이들 후보들에게 권한다. 대한민국 국가이념을 구현한 공간, 효창원부터 참배하라. 구시대 권위 질서의 수직계열화가 구현된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는 상대화하라. 이렇게 반공·군사주의의 일원적 지배에 거리를 두라. 대한민국은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고 존중되어야 하는,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이다. 

## ‘평화저널리즘’은 독립·통일운동



원희복  
본지 편집인

지난 6월 10일 자유언론실천재단(이사장 이부영)은 ‘평화저널리즘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다. 이 행사는 민족일보 창간 60주년, 조용수 사장 60주기를 맞아 6·15 남북공동성명 21주년에 즈음해 마련됐다. 민족일보가 통일언론을 지향했고, 조용수 사장은 이로 인해 ‘법살’됐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 세미나에서 ‘반통일 언론의 기원과 폐해, 그리고 극복책’이라는 제목으로 발제했다. 이 ‘반통일 언론’의 기원은 일제의 조선병탄에서 비롯됐고, 따라서 이를 극복하는 것은 일제 잔재 청산이며 결국 진정한 광복이라는 것이 필자의 논지다.

### 반통일 언론의 폐해 ‘3맹 9혹’

반통일 언론이 강요한 폐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필자는 그것을 ‘3맹 9혹’이라 정리했다. 3맹은 북을 모르는 북맹, 주변국을 모르는 외맹, 스스로를 모르는 자맹을 의미한다. 이 3맹에 각각 3가지 모두 9가지 미혹이 있다. 우선 북맹에서 제1혹은 북은 사람 살 곳이 못 된다는 인식이다. 이는 1950~1970년대 반공교육의 잔재로 달라

진 북을 보지 못한다. 제2혹은 북의 지도자는 매우 즉흥적이라는 잘못된 믿음이다. 이로 인해 잔인한 숙청이 이뤄지고 군부의 반발과 경제 파탄으로 곧 체제가 붕괴할 것이라 주장한다. 하지만 이들 주장은 모두 틀렸다.

제3혹은 북은 여전히 호전적 대남적화 야욕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90년대 동구권 몰락 이후 북의 대외정책은 체제 보전이 제1의 목표인 것이 뚜렷하다. 노동당 규약(올초 제8차 당대회에서 남조선 해방 대목을 삭제했다는 보도도 있다) 남조선 해방 대목은 체제 보전을 위한 동원 기제일 뿐이다.

두 번째는 외맹, 주변국 즉 국제정세를 모른다는 것이다. 그중 제4혹은 70여 년 전 난리통에 맺은 불평등 조약이 지고지선이라 믿는 ‘고집’이다. 세계적으로 외국군대 주둔비를 이렇게 주는 나라가 없다. 반통일 언론은 국제법·세계사에도 눈을 달게 만든다. 제5혹은 그러다 보니 우리 땅에 있는 유엔군의 본질을 모른다. 유사시 한반도에 일본 자위대까지 개입할 수 있다는 사실도 모른다. 제6혹은 한반도 주변국, 특히 미국과 일본이 우리의 통일을 도울 것이라는 환상이다. 일본이 통일된 한반도를 원하겠는가.

세 번째는 자맹 즉 스스로를 모른다는 것이다. 그 제7혹은 자신의 통일방안을 모른다는 것이다.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서로 남북의 존



재를 인정하고, 교류협력을 거쳐 연합단계(낮은 연방단계)를 통해 동수 통일평의회를 구성하고 통일헌법 제정하는 것으로 돼 있다. 박근혜 정권이 흡수통일을 주장해도 언론이 이를 비판하지 못했다. 우리 자신의 통일방안을 모르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제8호, 패배주의적 사고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경제력 세계 10위권, 군사력 6~7위권의 우리가 북과 전쟁하면 패배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이는 국방예산을 사수하려는 군인들의 엄살이다. 마지막 제9호는 북풍이 정치적 효과가 있다는 환상이다. 선거 때마다 북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반민족적' 작태가 바로 그것이다.

반통일 언론이 강요한 '3맹 9혹'으로 우리는 통일 공포증에 빠지고, 통일 의지가 꺾여있다. 국민은 분열되고 정치인은 자기 검열을 한다. 이는

정부의 이성적인 정책 결정을 어렵게 하고, 결국 민족의 미래와 희망을 잃는 악순환을 강요한다. 결국 '3맹 9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북을 잘 알아야 한다.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선 북의 낡은 기억도, 장밋빛 환상도 아닌 현재 있는 그대로 정확히 알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북의 신문, 통신 홈페이지 등 서로 보고 사람도 만나야 한다. 결국 이를 막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해야 한다.

**반통일 언론 기원은 일제의 조선 병탄 수단**

국가보안법의 역사를 1948년 12월 1일로 보는 사람이 많다. 이는 현행 법전만 보고 판단하는 '오류'이고, 역사와 법 제정 정신을 모르는 '단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평화저널리즘 모색 세미나에서 필자가 발제를 하고 있다.



평화저널리즘 모색 세미나에서 임상우(중립화 추진하는 사람들) 사무총장과, 필자, 사회자인 고승우 80년 해직언론인협회의 대표, 이계환 통일뉴스 발행인, 권영석 연합뉴스 통일연구소장(사진 왼쪽부터)이 토론하고 있다.

이다. 1907년 일제 통감부가 대한제국을 겁박해 제정한 법 제1호가 신문지법(新聞紙法)이다. 3일 후 만든 제2호 법이 보안법(保安法)이고, 제3호 법이 출판법이다. 모두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는 법이다. 신문지법은 조선인의 언론 즉 말을 통제하고, 보안법은 말의 원천인 의식(사상)을 틀어막기 위한 수단이었다. 일제는 기자는 보안법, 발행인은 신문지법으로 탄압했다. 이들 법을 통해 중복물이를 자행, 민족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을 이간질 시켰다. 이때 생긴 '빨갱이'라는 말은 따지지 말고 죽여야 할 대상이 됐다.

결국 일제는 이들 법으로 3년 만인 1910년 조선병탄에 성공했다. 1917년 러시아혁명으로 차르체제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일왕제를 수호하기 위해 1925년 제정한 것이 치안유지법이다. 이 치안유지법도 '빨갱이 물이'에 효과적으로 쓰였

지만, 해방 후 공식 폐지됐다. 일제의 법과 제도를 그대로 승계한 미군정은 1945년 10월 9일 군정법령 11호를 통해 예비검속법, 치안유지법, 정치범처벌법, 경찰법 등 7개 법만 폐지했다. 즉 보안법, 신문지법, 불온문서 취체령 등 일제가 만든 법 대부분은 그대로 이어졌다. 실제 미군정은 언론인을 신문지법을 적용해 처벌하는 등 미군정 3년간 보안법은 엄존했다. 이 과정에서 친일세력은 분단세력과 결탁, 보안법으로 서로를 중요하게 만들었다. 그 결과는 남북 분단이다.

1948년 8월 15일 정부가 수립되고 보안법은 국가보안법으로 '대체'됐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은 대한제국에서 제정돼-일제강점하-미군정-해방(이승만 정부~문재인 정부)된 조국까지 무려 114년 동안 이어진 법이다. 아마 이렇게 질긴 생명력을 가진 법은 국가보안법 말고 없을 것이

다. 한국전쟁과 5·16 쿠데타는 친일·분단세력에 냉전세력이 가세하는 계기가 됐고, 이는 강력한 카르텔을 만들었다. 국가보안법은 정적을 죽이거나, 선거에 이용하거나, 정권의 부정을 정당화 시키는 데 악용됐다.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고 냉전적 사고를 강요한 결과 우리 사회는 '3명 9혹'이 팽배한 사회가 되어버린 것이다.

###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요즘은 독립이나 민족, 통일과 같은 거대담론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 기성세대가 교육을 잘못시켰고 모범을 보이지 못한 탓이다. 특히 '거대 담론이나 진보의제는 표가 되지 않는다'는 사회의 전반적 보수화에 따라 진보정당마저 이 문제를 소홀히 다루고 있다. 그러나 통일을 위해선 우리 안의 냉전의식을 벗어나야 하는데, 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바로 반통일 언론이다. 따라서 반통일 언론 극복은 진정한 광복과 직결돼 있다.


공영방송을 제외한 대부분 언론사는 주식회사다. 정부가 강제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여전히 정부의 힘은 막강하다. 과거 김대중 정부는 언론사에 세무조사를 통해 사주를 구속하고, 노무현 정부 때는 정부 부처 기자실을 폐쇄하고, 오보 대응을 철저히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언론 불간섭'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통일 언론의 '숙주격'인 국가보안법 폐지 열정도 식었다.

반통일 언론을 극복하는데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언론 비평제도의 확대, 기자에 대한 평화통일 교육, 오보에 대한 명확한 대응, 한국언론진흥재단 등을 통한 언론사 지원 배제 등 정부가 가진 힘은 크다. 특히 종편에 대한 엄정한 행정 처리는 꼭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지 않아도 된다. 문제는 확고한 의지다.

게다가 요즘에는 진보언론마저 통일언론에 무관심하거나 냉전언론에 편승해 문제다. 북의 3대 세습 비난 여부가 종북 언론의 기준이 되는 반(反)헌법적 작태나, 2019년 평양에서 열린 남북 축구 무관중 경기에 대한 무조건적 비판, 연평도 공무원 월북 피살 사건에 대한 광적 비난 보도 등은 냉전언론의 단면이다. 이것은 언론, 기자의 통일교육과 헌법교육 부재에서 비롯된다.

정권도, 광고주도, 사주도 문제지만 결국 최종 문제는 기자의 문제다. 게으른 기자들이 변하는 북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과거 냉전논리에 갇혀 있거나, 정치권이 던져주는 손쉬운 '기삿감'에 순치된 탓이다. 그러면서 언론고시의 우월함에 팽배해 있고, 편향된 미국 연수·유학으로 미국을 얼마나 잘 해설하느냐가 통일문제 전문가로 인식되는 뒤뜰린 현실이 문제다.

평화 저널리즘은 어렵지만, 꼭 가야 할 길이다. 기자들은 '냉전 사고를 버리고', '평화통일 이론다는 신념을 가지고',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반통일 언론을 극복해야 한다. 그것이 평화저널리즘을 향해 가는 길이고, 이것은 독립운동 나아가 통일운동이다. 

## '친고종'-'외교관'-'개화파 관료'에서 독립운동가로 조선민족대동단기념사업회 장명국 회장, 동농 김가진 선생 서훈 신청

조선민족대동단기념사업회 장명국 회장이 동농(東農) 김가진(金嘉鎭) 선생의 독립유공자 서훈을 신청했다. 지난 5월 25일, 장명국 회장은 김가진 선생이 총재를 맡아 이끌었던 경술국치 이후 국내 최대의 항일 비밀결사 조선민족대동단의 기념사업회 회장 자격으로 국가보훈처에 독립유공자 포상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사업회에 전했다.

신청서에 기재한 김가진 선생의 경력은 ▲조선민족대동단 총재 ▲대한민국임시정부 고문 ▲북로군정서 고문 ▲독립협회 위원 ▲대한협회 회장이며, 공적 개요는 ▲지하운동조직의 선구, 조선민족대동단 총재 ▲상해 망명, 대한민국임시정부 고문, 상해에서 서거 ▲북로군정서 고문 ▲대한협회 총재 ▲서재필과 함께 독립협회 창립, 활동 ▲민영환과 깊은 교우를 나누며 시국을 함께 논함 ▲이승만 도미 시 여비 공여 등이다.

김가진 선생의 서훈 신청은 1994년 이래 이번이 일곱 번째로, 그동안 번번이 보류됐다. 2013년 국가보훈처의 「김가진 공적 심사 결과 보고(2013.11.28)」는 “선친일 후독립운동에 해당하더라도 한말과 1910년대의 흠결이 너무 커서 포상 부적합”하다며, 포상 보류를 의결했고, 2019년

에도 같은 이유로 보류됐다. 이 점에 대해 장명국 회장은 “‘선친일 후독립’이라는 평가는 김가진 선생의 살아온 길과 맞지 않다”면서, “김가진 선생은 ‘친고종’-‘외교관’-‘개화파 관료’에서 출발해 독립운동가로 나아간 구국의 원로”라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명국 회장은 신청서에 별첨한 「'친고종'-'외교관'-'개화파 관료'에서 독립운동가로」라는 장문의 글에서, 김가진의 정체성을 ▲고종의 근신(近臣)이자 유능한 개혁 관료 ▲조선을 지키려 애쓴 '일본통' 외교관 ▲'개화파'로 요약하고, 사료(史料)를 적시하며 김가진은 일제에 협력하지 않았을뿐더러 탐관오리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가족의 기록이어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반론을 모르지 않습니다만, 김가진의 며느리 수당 정정화 선생이 쓴 자서전 『장강일기』에는 '작위에 따라서 주어지는 연금은 끝내 받기를 거부하며 지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고종이 하사한 1만 평 부지, 백운장이 동척으로 넘어가고 체부동에서 셋방살이를 살았던 사실도 은사금을 받지 않았다는 정황증거로 생각합니다. 운산금광 건에서도 확인했듯이, 김가진의 돈과 관련한

추문이나 구설은 전부 사실이 아닙니다. 주일공사부터 대신 시절까지 출사(出仕) 기간, 독립협회-대한자강회-대한협회-대동단-대한민국임시정부 국로(國老)로 이어진 김가진의 행적과 행보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은사금을 받지 않았다는 정정화 선생의 증언과 정황증거가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훈심사위원들께서는 이 점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장명국 회장은 “망국을 막지 못한 대한제국의 대신에게 역사적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며, “김가진은 누구보다도 이 역사적 책임을 자각하고 있던 분”이라고 설명했다. “김가진은 대한제국 대신 가운데 자신이 서 있었던 자리가 바로 망국의 원죄라는 사실을 깨닫고 항일에 나서 대한민국임시정부에 합류한 유일한 인사”라며, 박은식 선생이 『한국독립운동지혈사』 하권(下卷) ‘대동단과 의친왕’ 편에 기술한 김가진에 대한 평가를 인용했다.

“그의 나이 75세였으나 지조와 기상은 의연하여 고난과 위협을 회피하지 않으니 임시정부와 각 단체가 한결같이 충심으로 환영하였다.”

장명국 회장은 박은식 선생이 어떤 분이냐고 반문한 뒤, “김가진이 일제에 부역하고 매국한 ‘친일파’였다면, ‘한말과 1910년대의 흠결이 너무 커서 독립유공자 포상이 부적합’ 할 정도의 인사였다면, 대한민국임시정부가 망명을 받아주지

도 않았겠거니와 박은식 선생이 이렇게 쓰지도 않으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독립운동지혈사』의 이 문장으로 당대에 이미 김가진에 대한 평가는 내려졌다는 게 장명국 회장의 생각이다.

“김가진은 망명지의 궁핍한 생활 속에서 자신이 어떤 병환에 걸렸는지 알고 있었지만, 투약조차 하지 못한 채 영양실조로 운명했습니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매우 곤궁한 형편이었음에도 최대한 극진하게 국장에 준하는 예로 김가진의 가는 길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드님과 며느님, 손자는 해방이 되는 그날까지 중국에서 망명 생활을 하며 백범 김구 선생을 받들고 임시정부를 지켰습니다. 신청인은 위원회와 정부의 약 25년간 여러 차례에 걸친 보류를 이제는 매듭지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김가진 선생이 이끈 조선민족대동단 회원 가운데 현재까지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은 분은 ▲전협(1878~1927, 1990년 애국장) ▲최익환(1899~1959, 1990년 애국장) ▲권태석(1895~1948, 2006년 애국장) ▲민강(1883~1931, 1963년 독립장) ▲나창현(1894~1936, 1963년 독립장) ▲신규식(1880~1922, 1962년 대통령장) ▲장현식(1896~1950, 1990년 애국장) ▲김의한(1900~1964, 1990년 독립장) ▲정정화(1900~1991, 1990년 애족장) 선생 등 모두 83인이다. 

## 독립운동, 그 시간을 만나러 가는 길



김희준  
무궁무진스튜디오

주말을 맞이하는 어느 퇴근길, 종로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볍다. 주말을 앞두고 지인과의 약속에 들떠있는 것은 아니다. 오늘의 발걸음이 가벼운 이유는 아무 걱정 없이 종로의 시간을 만나러 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아닌 시간과의 만남이라고 해야 할까. 그런데 달리 생각해보니 사람과의 만남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오늘 만나는 시간은 사람에 대한 시간이니 말이다.

1호선 종각역에 내려 3번 출구 계단을 오르려다 랜스레 종로서적을 거쳐 지상으로 나와본다. 서점 안의 적당히 건조한 공기가 오늘의 만남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키운다. 지상으로 올라온 뒤 보신각을 등지고 공평동을 가로지른다. 사람을 만나러 가는 길에는 제대로 볼 수 없었던 다양한 내용의 표석과 조금은 이질적인 양식의 건물들이 발걸음을 늦춘다. 시간과의 만남에는 약속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에 서두르지 않고 내키는 대로 그곳의 역사를 마주한다. 그렇게 현재와 과거가 공존하는 건물들을 구경하며 걷다 보면 인사동을 비롯한 여러 골목길이 울곡로로 모여드는 안국동 사거리가 나타난다. 작은 골목들이 울곡로로 모여드는 모양새가 마치 작은 하천들이 큰 강으로 흘러드는 모습과 닮아 보인다. 물 대신 자동차가 흐르는 그 강을 건너 곧장 좁은 골목길로 들어서면 담벼락이 양옆을 감싸고 나뭇잎이 천장을 이룬 길이 펼쳐진다. 감고당길에 들 어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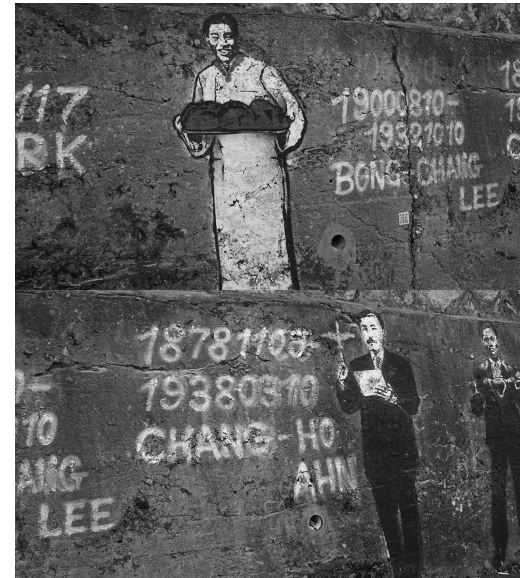
덕성여자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양옆을 아늑하게 감싸고 담벼락 안쪽에서부터 가지들 드리운 나무의 무성한 이파리는 머리 위를 포근히 덮어

준다. 이 길은 어떤 계절이든 걷기를 마다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이 아름다운 길의 또 다른 이름은 '여성독립운동가의 길'. 덕성여자중·고등학교의 전신인 근화학원의 설립자 차미리사 선생과 근화여자학교 학생들의 독립운동을 기리는 의미로 붙여진 이름이다. 골목 곳곳에 등장하는 안내판과 크고 작은 이정표에 쓰인 오래된 이름들을 보다 보면 그들의 시간이 지금 내가 걷고 있는 길 위로 나타나는 기분이다. 그때도 이쪽 골목에서 나와 저쪽 골목으로 향하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담벼락 안에 세워졌던 건물을 나고 드는 사람들도, 친구끼리, 가족끼리, 연인끼리 삼삼오오 걷고 있는 거리에서 과거와 현재의 시간이 뒤섞여 있다는 느낌에 빠져들 때 즈음, 발걸음이 이 포근한 길 끝자락에 다다른다.

짧은 건널목을 지나면 정독도서관과 그 곁의



또 다른 근사한 골목이 기다리고 있다. 이 골목이 근사한 이유는 세련된 가게나 카페보다는 정독도서관 외벽의 벽화에 있다고 생각한다. 정독도서관 왼편에는 담벼락을 따라 독립운동가의



길이 조성되어 있다. 이 길은 바로 직전에 지나온 여성독립운동가의 길과는 또 다른 의미로 과거와 현재의 시간이 서로 뒤섞여 있다. 조금 더 직관적이라고 해야 할까. 정독도서관 외벽에는 이어폰을 꽂고 있는 유관순, 산타클로스 복장의 김구, 캐리어를 끌고 있는 김란사 등 여러 독립운동가의 모습이 현대적으로 재탄생해 그래피티로 남아있다.

2018년에 만들어진 이 벽화는 시멘트로 만들어진 벽에다 그려서 현재 벽화 일부가 벗겨졌지만, 아직 벽화를 즐기기에 부족함이 없다. 독립운동가 옆에 쓰인 숫자는 이분들이 치열하게 살다가 간 인생의 길이를 보여주었다. 작품을 만든 작가는 인터뷰를 통해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유발해 더 많은 관심을 두게 하고자 했다고 한다. 벽화 주변을 둘러보니 과연 작가의 의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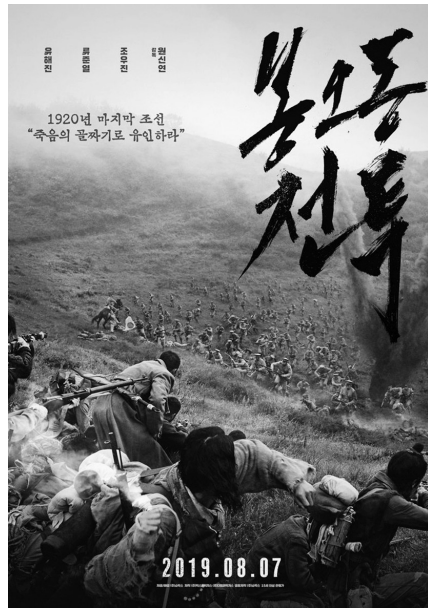
로 오가는 사람들의 눈빛에 호기심과 즐거움이 한 가득이다. 청년 시절 제과점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이봉창 선생이 갓 구워진 빵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니 그 어느 때보다 정겨운 기분이 차오른다. 독립운동가들이 현재를 살았다면 이렇게 다양한 삶을 살지 않을까 느껴진다.

독립운동가들이 현재 청년들의 삶과 한데 어우러진 모습은 마치 친구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느낌을 준다. “요즘 어떻게 사니?”, “나는 이렇게 살아.”, “너도 꿈을 포기하지 말고 나아가렴.”이라고 독립운동가들이 나에게 말을 걸어주는 것 같다. 그리고 벽화를 통해 아직 잊히지 않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지금을 살아있다고 속삭인다. 100년 전 그들의 아름다운 인생과 100년 후 지금 청년들의 아름다운 인생이 서로가 안녕하기를 웃으며 바라본다. 🌸



## 1920년대 독립군을 기억하다, 영화 <봉오동전투>

배현서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제2기 청년위원단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청년위원단 2기로 활동하게 된 배현서입니다. 이번에 2019년에 상영한 영화 <봉오동전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봉오동전투의 배경이 되는 시점은 1919년 3·1운동 이후입니다. 항일무장투쟁이 국내에서 활동이 어려워지자 만주 지역으로 거점을 옮긴 독립군 부대들은 서로 연합을 추진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부대로 1920년 5월 말 중국의 봉오동에서 군무도독부, 국민회군, 대한신민단 독립군 부대 등과 연합한 대한북로독군부

가 있습니다.

봉오동은 두만강에서 약 40리 거리에 있으며 고려령의 험준한 산줄기가 사방을 병풍처럼 둘러쳐진 장장 수십 리를 뻗은 계곡 지대입니다. 봉오동전투를 지휘한 홍범도 장군의 유인 작전으로 일본군은 봉오동 상촌 독립군 700명이 잠복해 있는 포위망 가운데로 들어왔습니다. 이후 홍범도 장군의 명령에 따라 동-서-북 3면에서 협공하여 일본군은 갈팡질팡하면서 쓰러졌습니다. 이 전투로 일본군 약 150명의 전사자와 200여 명의 부상자를 내며 승리를 거렸습니다.

영화를 보기 전까지는 보통 봉오동전투라고 하면 독립군이 일본군에 승리한 전투라고만 알고 있지, 어떻게 맞서 싸웠는지는 정확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영화를 통해 이렇게 각기 다른 부대의 독립군들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 맞서 싸우는 장면을 보며 대단하고 독립군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독립군은 사투리가 다를 뿐 아니라 무기도 러시아산, 일본산, 미국산 등 종류가 달라 체계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공부할 청년들이 총을 잡는 상황에서 무고한 주민들이 일본군에 희생당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가 일본군 총에 맞는 장면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힘든 건 가난이었습니다. 감자 한 개를 여럿이 나눠 먹는 모습은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영화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황해철(유해진)과 마병구(조우진) 등 독립군이 일본군을 봉오동까지 유인하며 주변의 지원 없이 치열하고 처절하게 싸운 장면입니다. 영화 후반부 독립군이 점점 한계에 다다를 때 다른 연합 부대가 봉오동 전체를 에워싸고 일본군을 향해 반격하는 장면에서 저는 “오늘날에 내가 이렇게 편안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이유는 과거 무수한 독립군들이 나라를 지켜왔기 때문이구나”라는걸 새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영화 이외에 기억했으면 하는 것이 따로 있어 몇 가지 소개하자면 봉오동전투에서 패배한 일본 제국이 마적단을 매수하여 훈춘 지역에서 일본제국 영사관을 공격해 한인들을 공격할 명분을 만든 사건인 훈춘사건입니다. 일본은 마적토벌이라는 구실 하에 대규모 군대를 출동시켜 일대의 조선인과 독립운동가들을 무차별 학살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한민회와 독립단조직을 파괴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훈춘에서만 242명의 조선인 교포가 학살당하고, 가옥이 460동이 파괴되었습니다. 이후 일본군의 강요로 중국 관원들은 독립군을 탄압하여 독립군단에 근거지를 이동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독립군은 이에 서북방 삼림지대로 근거지를 옮겨 일제에 대응, 국경과 근접해 국내 진입 작전을 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발생한 전투가 바로 청산리대첩입니다. 김좌진 장군의 부대와 홍범도 장군의 부대는 추적하는 일본군 수색대와 산발적인 접전을 벌이면서 고동하를 따라 상류로 이동하였으며 독립군의 행방을 추적하던 일본군은 고동하 계곡의 독립군 야영지를 포착하고 급습하였으나 이미 독립군은 공격을 대비해 매복 중이었습니다. 독립군은 즉시 반격하여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10월 21일부터 시작된 청산리대첩에서 독립군은 26일 새벽까지 10여 회의 전투를 벌인 끝에 적의 연대장을 포함한 1,200여 명을 사살하였습니다. 청산리대첩은 독립군이 일본군의 간도 침략 후 그들과 대결한 전투 중 가장 큰 규모였으며, 독립군이 최대의 전과를 거둔 가장 빛나는 승리입니다.

이처럼 빛나는 승리 이후 발생한 간도참변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독립신문에 따르면 약 3,700여 명의 조선인이 일본군에 피살되었습니다.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보이는 대로 겁탈하고 살해하였습니다. 이 참변으로 간도를 포함한 만주 지역에서 활동을 벌였던 한국인 사회 및 항일 단체들은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1920년대 독립군을 되돌아보면서 봉오동전투와 청산리전투를 통해 일제에 맞서 승리한 기쁨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후 훈춘사건과 간도참변 같은 가슴 아픈 사건들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영화를 보며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청년위원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함안의 독립운동 : 3·1운동을 중심으로

편집부

동아시아에서 근대를 상징하는 문명의 이기(利器)는 병기(兵器)로 등장했다. 기선(汽船)이 그랬다. 흑선(黑船)에 놀라 개항한 이래 일본이 가장 손에 넣고 싶어 했던 게 그것이었고, 결국 그들은 군함에 대포를 싣고 300년 만에 다시 바다를 건너왔다. 이양선(異樣船)은 조선왕조에도 두려움의 대상이었지만, 대책이란 게 어처구니없게도 학우선(鶴羽船)이었다. 팔도의 백성이 학을 잡아 대령하느라 경을 쳤고, 대원군이 지켜보는 가운데 양화나무에서 거행된 진수식, 화살처럼 빠르게 물을 가를 거라던 학우선은 제자리에서 꼼짝도 못하더니 순식간에 가라앉고 말았다.

기차(汽車)라고 다르지 않았다. 우리 땅에 남이 놓은 철도가 행복을 실어 나를 리 없다. 객차(客車)는 병사를 싣고 만주로 내달리고, 화차(貨車)는 쌀을 싣고 항구로 내뺐으니, 문명의 이기는 전쟁과 약탈의 흥기로 둔갑했다. 증기기관차가 뿜어내는 검은 연기는 민족의 앞날을 가로막은 먹구름이나 다름없었고, 정미년(丁未年)에 의병이 철로를 공격한 것은 이 때문이다.

경인선은 1899년, 경부선과 경의선은 1905년에 개통했다. 모두 일제의 숨씨였고, 러일전쟁을 위한 것이었다. 호남선은 1914년에 개통했다. 호남의 쌀은 전북 줄포와 전남 목포에서 배에 실렸

다. 지선(支線) 철도 가운데 가장 먼저 개통한 노선은 마산선으로, 경의선보다도 먼저였다. 삼랑진과 마산을 연결하는 마산선은 군용이었고, 이어서 함안-합천-의령-진양(1994년 진주시와 통합) 들녘의 쌀을 수탈하기 위해 함안 군북역을 종착역으로 하는 마산-군북선이 놓였다. 하루에도 몇 번씩 굉음을 울리며 달리는 기차를 노려보며, 함안사람들은 이를 갈았다.

### 제중(濟衆)과 구국(救國)의 신의(神醫), 이태준 선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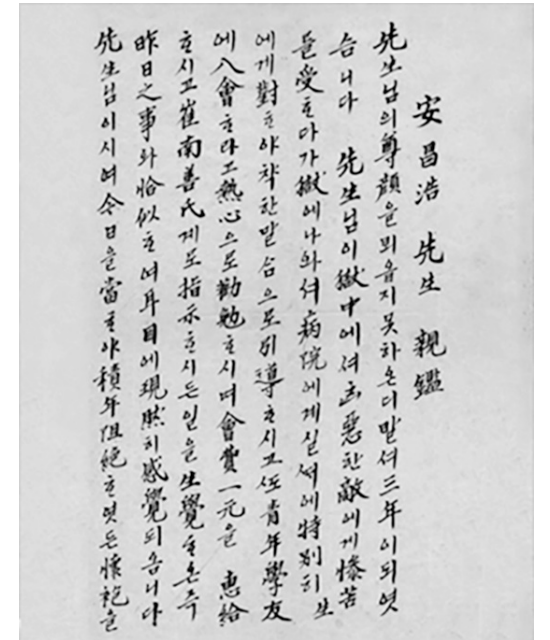
함안의 독립운동을 말하려면, 이태준 선생(1883~1921)을 빼놓을 수 없다. 함안 군북면에서 태어난 이태준은 20대 초반에

상경해 1907년 세브란스의학교 2기로 입학했다. 정미년 대한제국 군대 해산 당시 일본군과 싸우다가 다친 부상병들을 도운 게 의학도가 된 계기라고 전해지나, 확실치는 않다. 그가 의사이자

독립운동가로 활동하게 된 데에는 세브란스 1기 선배인 김필순(1878~1919)의 영향이 절대적이었다. 김필순은 김규식의 처남이자 김마리아의 삼촌으로, 도산 안창호와 함께 신민회(新民會)를 조직했다. 이태준은 김필순과 안창호의 권유로 신민회의 자매단체인 청년학우회에 가입해, 독립운동에 몸을 실었다.

1911년 세브란스를 졸업하고 의사면허를 받은 이태준은 이듬해 난징(南京)으로 망명했다. 소위 '105인 사건'으로 왜경에 쫓기던 김필순이 먼저 결행했다. 중국에서 망명 지사들과 독립운동의 길을 모색한 뒤, 그는 1914년 독립군 양성을 위한 비밀 군관학교 설립을 목표로 몽골로 갔다. 김규식과 함께였다. 만주와 달리 몽골은 일본의 입김이 덜 미쳤고, 의사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곳이어서, 독립의 뜻을 펴기에 유리했다. 이로 미루어볼 때 이태준이 의사가 된 이유는 철두철미 독립을 위한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태준은 몽골의 수도 고륜(현재 울란바토르)에 동의의국(同義醫局)이라는 병원을 열고 근거지 마련에 착수했다. 당시 몽골은 매독이 만연해 고통을 받고 있었다. 이태준의 도움으로 매독 퇴치에 성공한 몽골인들은 그를 활불(活佛)로 받들었고, 국왕 보그드 칸은 최고훈장을 수여하고 어의(御醫)로 임명했다. 몽골에 터를 잡는 데 성공한 이태준은 독립운동가들에게 숙식과 자금을 제공했고, 그의 병원은 해외 독립운동의 중요한 거점 가운데 하나였다. 신한청년당 대표로 파리강화회의에 파견된 김규식을 지원하고, 의열



이태준이 안창호에게 보낸 편지(독립기념관 소장)

단에 가입하는 한편, 임시정부의 군의관 감무(監務)로 일했다.

소비에트정부의 독립운동 지원금을 상하이로 운반한 이도 그였다. 상하이에서 김원봉을 만나 폭탄제조 기술자인 헝가리인 마자르를 보내겠다고 약속하고 몽골로 돌아간 그를 기다린 건 러시아의 반혁명 군대와 일본군 장교들이었다. 김원봉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중국군의 동행 퇴각 요청마저 거절한 이태준은 결국 잔인하게 처형당했다. 그의 나이 38세였다. 그로부터 몇 년 뒤, 고륜에 묻힌 이태준의 묘를 찾은 여운형은 “이 땅의 민중을 위하여 젊은 일생을 바친 한 조선 청년의 거룩한 헌신과 희생의 기념비”라며 추모



이태준 선생 기념비(몽골 울란바토르)

했다. 정부는 1990년 이태준 선생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고, 2001년 7월 울란바토르에 이태준기념공원이 건립됐다. 고향 함안군 군북면에는 이태준기념관이 공문을 연다.

라 해산했다.

배동석 열사는 징역 1년형을 받고 복역을 마친 뒤 고향 김해로 돌아왔으나, 눈알과 소톱도 모두 빠진 상태였다고 하며, 심한 고문 후유증으로 2년 뒤 숨을 거뒀다.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됐다. 김정오 선생도 모진 고문에 불구의 몸이 되어 석방됐고, 1980년 국민훈장 석류장을 받았다.

함안의 만세운동은 교회를 중심으로 전개됐다. 이령교회가 이끈 칠북 연개장터 시위가 기폭제가 되어, 이어 3월 12일에는 대산면 대산교회가 평림장터에서 시위를 벌였고, 칠서면, 함안읍, 군북면, 칠원면으로 뻗어나갔다.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연구소는 2006년 12월 발간한 「3·1운동사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1919년 3월 9일 함안 칠북면 이령리 연개장터의 만세의거가 경남 최초의 의거”라고 밝혔다. 함안군은 칠북3·1독립기념회 주관으로 매년 3월 9일 연개장터 만세운동을 재현해 순국선열들의 뜻을 기리는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매년 3월 9일, 연개장터 시위를 재현하고 기념하는 함안군민들

### 경남 최초의 만세운동 ; 3·9 함안 칠북 연개장터 시위

경남 최초의 만세운동은 3월 9일 함안 칠북면 연개장터에서 일어났다. 이 시위는 칠북 이령교회가 주축이었다. 사위 배동석 열사가 학생대표로 종로 탑골공원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하고 체포되자, 이령교회 장로였던 김세민 선생이 서울의 만세운동 상황을 전하고, 김정오 선생이 독립선언서를 가져오자, 김두량, 김순 등 29명이 새말예배당에 모여 3월 9일 연개장터에 시위를하기로 결의했다. 시위 당일 연개장터에 운집한 수천의 함안군민들은 해가 저물 때까지 “대한독립만세”를 외치고, 독립선언서의 비폭력 지침에 따

### 경남에서 가장 치열히 저항 ; 3·20 함안 군북장터 시위

연개장터 시위는 기독교가 주도했지만, 군북면에서는 유림이 나섰고, 리 단위 마을 단위로 책임자가 선임돼 조직적으로 만세운동을 추진했다. 박상엽, 김삼도, 이재형, 조성술, 조용태, 조문제, 노수정, 이점수, 조문규 등이 백이산 서산서당에 모였고, 이 자리에서 20일 군북장터 시위를 두 단계로 나눠 거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20일이 되자, 1단계로 책임자들이 덕대리 신창야학교에서 학생 50여 명과 함께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군북장터로 향했고, 이어 2단계로 오후 1시 정각에 군북장터 인근 냇가에 모인 면민 수백 명 앞에서 조상규가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조용규가 “대한독립만세”를 선창했다.

만세운동 대열은 행진을 시작했고, 장터 상인들과 밭에서 일하던 농민들이 합세해 삼시간에 5천여 명으로 불어났다. 왜경과 헌병대 등이 출동해 막아섰지만, 시위 대열은 전혀 흐트러지지 않고 밀어붙였다. 왜경과 헌병이 발포하자, 면민들은 돌을 던지며 맞섰고, 겁에 질린 일군은 마산에 주둔하던 중포병대대 병력까지 동원했다. 3월 20일 군북장터 만세시위로 20명이 현장에서 총에 맞아 순국하고, 18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수백명이 구타당하고 체포됐다. 일제 폭도 사망 1명, 부상 12명이 나왔을 만큼, 이날 시위는 경남에서 가장 치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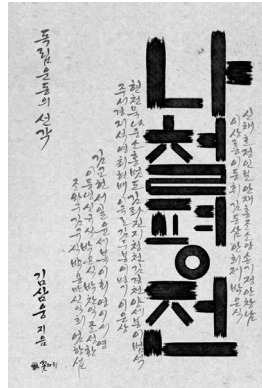
함안군 군북3.1독립기념공원

만세운동으로 함안군에서 모두 92명의 애국지사가 복역했다. 이는 마산 42명, 창원 41명, 통영 23명, 창녕 23명 등에 비해 월등히 많은 숫자다. 김동균 함안문화원장은 함안의 만세운동을 이렇게 평가한다. “함안의 만세의거는 태극기를 앞세워 주재소, 면사무소, 등기소 등 일본 관리가 주재하는 곳을 대상으로 정면충돌도 불사했다. 일본군의 총칼 위협에도 일본인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만세의거를 펼쳤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와 같은 점을 볼 때 함안의 3·1운동은 반제국주의 투쟁인 항일 운동임과 동시에 반자본주의 투쟁의 성격까지 띠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함안 연개장터 및 군북장터 시위는 경남 3·1운동의 효시이자 기폭제 역할을 다했고, 이후 함안의 독립운동은 조열녀 왜경 피살 사건(1924), 군북공립보통학교 항일시위(1932), 군북농민조합 사건(1932), 동창야학교 사건(1935), 법수면 항일시위(1939) 등으로 이어지며 적색농민조합 운동으로 발전한다.

## 『나철 평전 : 독립운동의 선각』

• 지은이 : 김삼웅 | • 출판사 : 꽃자리



### “나라는 비록 망했으나 정신은 가히 존재한다”

이 책은 대중교의 창시자이자 독립운동가 홍암 나철 선생의 일대를 그린 책이다. 저자 김삼웅은 나철 선생의 일대와 그의 사상, 이후의 영향력을 상세하게 집필했다.

홍암 나철 선생은 과거에 급제하였으나 관직에 나가지 않고 을사늑약을 전후하여 세 차례나 일본으로 건너가 궁성 앞에서 단식 농성하면서, 조선 침략의 원흉들에게 흥계를 중단할 것을 엄중하게 힐책하였다. 귀국하여 비밀결사를 조직하고 을사오적의 처단을 시도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붙잡혀 10년 유배형에 처해졌다. 고종의 특사로 풀려난 후 다시 도일, 이토 히로부미 등에게 조선침략을 규탄했다. 이 시기에 단군교에 귀의, 단군교를 대중교로 중광했다. 이는 전통적인 단군교를 단순히 개명한 것이 아니라 종교적이면서 역사적, 사상적인 이론으로 새롭게 정립(중광)한 것이다.

나철 선생이 정립한 대중교는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적인 구심점이자 텃밭이었다. 이상룡, 박은식, 김교헌, 신재호, 정인보, 문일평, 안재홍 등 민족사학의 뿌리는 대중교의 ‘텃밭’에서 기원하며 이상설, 김좌진, 홍범도, 이범석 등 쟁쟁한 독립운동가들이 대중교에 입교한 분들이었다.

## 『대한민국 임시정부 : 반만년 역사의 제1 대사건』

• 지은이 : 한시준 | • 출판사 : 한울



### “군주의 나라에서 국민의 나라로, 백성에서 국민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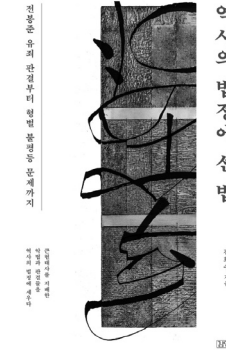
이 책은 한시준 독립기념관장이 4월 11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일에 맞춰 발행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일기를 적은 저서이다.

저자인 한시준 독립기념관장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을 ‘반만년 역사의 제1 대사건’이라고 설명한다. 고조선부터 대한제국까지 군주가 국가의 주인이고 민족 구성원들은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세금과 부역 등의 의무만 지고 살았다는 것이다. 1919년 3·1운동으로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는 군주주권에서 국민주권으로, 전제군주제에서 민주공화제로 전환해 백성에서 국민으로 살게 되는 새로운 시대를 창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자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모습을 흥미롭게 읽을 수 있도록 22개 주제를 정해 쉬운 문체로 써 독자들에게 선보인다. 여기에 현재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신을 계승한 ‘단절되지 않고 이어온 역사상’을 독자에게 짚어 준다.

## 『역사의 법정에 선 법』

• 지은이 : 김희수 | • 출판사 : 김영사



### “무엇이 그들을 유죄로 만들었는가?”

이 책은 근대의 출발점인 동학농민혁명부터 현재의 코로나19에 이르기까지, 근현대사 주요 사건과 판결로 살펴보는 법과 정의, 격동해온 한국 근현대사를 개괄하면서 가식적 법치에 대한 통렬한 비판과 함께 법의 이름으로 선언하는 진실의 실체를 역사적 성찰을 통해 제공한다. 국가와 국민을 지켜야 할 법이 어떻게 남용되었는지, 어떤 논리가 정의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변질했는지, 힘 있는 자들의 주장은 무엇이었는지 등을 역사의 과정에서 파악했다.

최초의 근대 법원이 내린 최초의 판결인 전봉준 유죄선고부터 일제강점기 을사늑약과 국제법·식민지법의 정체, 임시정부와 독립운동의 적법성 문제, 권력자들에게 의해 자행된 헌법 파괴, 고문·가혹 행위로 조작된 사건의 법 논리, 유전무죄 무

전유죄의 형벌 불평등 문제까지, 대한민국을 뒤흔든 주요 사건과 판결들을 법과 정의의 관점에서 낱알이 파헤친다. 법이 정의롭고 평등하다는 것을 잊어가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 법과 정의의 조건을 묻는다.

## 『신흥무관학교』

• 지은이 : 박환 | • 출판사 : 선인문화사



신흥무관학교는 1911년 6월 10일 신흥강습소로 출발하여 1920년 폐교되기까지 3천여 명이나 되는 독립군을 배출한 대표적인 독립군 사관학교였다. 이 신흥무관학교는 일제강점기 국내외의 모든 항일무장투쟁의 뿌리가 되었다. 특히 신흥무관학교는 특정 세력이 아니라 이석영·이회영·이시영 등 6형제, 안동의 이상룡·김대락·김동삼 등과 경기도의 여준·윤기섭·임면수·김창환, 충청도의 이동녕·이세영·이장녕 등 신민회 계열의 인사 다수가 동참한 단합의 상징적 결과물이었다.

이 책은 기존의 연구성과들을 토대로 필자의 연구성과를 정리해 봄으로써 신흥무관학교의 전체상을 새롭게 살펴보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필자는 신흥무관학교를 새롭게 살펴보고자 하였다. 신흥무관학교가 신민회 정신을 바탕으로 공화주의 독립군을 양성하고자 하였고, 특정 집안이나 세력뿐만 아니라, 보다 광범위하고

다양한 많은 인물이 참여한 독립군 사관학교였음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아울러 졸업생들이 한국독립운동을 이끈 근간이 되었으며, 해방 후에도 남북 국가건설의 토대가 되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제2회 한국광복군 합동추모제전  
신복룡 본회 부회장,  
김자동 회장 추모사 대독



6월 1일 국립서울현충원 대한독립군무명용사의 탑 광장에서 제2회 한국광복군 합동추모제전이 진행되었습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대규모의 인원 참석이 곤란했지만, 광복군 유가족, 독립유공자 후손, 유관단체 회원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합동추모제전에는 김영관 한국광복군동지회 회장이 추념사를 해주셨고, 황기철 국가보훈처장, 서욱 국방부장관의 추모사가 있었습니다.

본회는 합동추모제에 조화를 보내고, 신복룡 부회장님께서 김자동 회장님을 대신해 추모사를 낭독해주셨습니다. 조세현 이사님께서도 이날 행사에 참석하셨고, 사무국에서는 이상혁 과장이 참석했습니다.

민족일보 창간 및 조용수 서거 60주년  
기념 '평화 저널리즘' 모색 세미나  
원희복 「독립정신」 편집위원장, 발제 맡아



본회 원희복 「독립정신」 편집위원장이 민족일보 창간 60주년 및 조용수 서거 60주기 기념 '평화 저널리즘' 모색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았습니다. 6월 1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세미나는 자유언론실천재단이 주최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후원하는 행사입니다. 원희복 편집위원장은 <‘평화 저널리즘’을 향하여 - 반통일 언론의 기원과 폐해, 그리고 극복책>이라는 제목으로 발제는 진행해 주셨습니다.

원 위원장은 반통일 언론의 기원은 1907년 일제의 강제로(통감부) 제정된 보안법과 신문지법이라고 소개하고, 이 두 법이 오랜 시간 동안 반통일 언론관을 키워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 반통일 언론이 통일을 방해하는 기사를 생산해 국민이 북한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스스로 통일방안을 모르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반통일 언론을 극복할 '평화 저널리즘'은 어렵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임을 제시해주었습니다.

우당이회영기념관, 서울 남산예장공원 이전  
본회, 화환 전달



6월 9일 우당이회영기념관이 기존 신교동 관사에서 서울 남산예장공원으로 이전했습니다. 우당이회영기념관은 우당 이회영 선생과 독립운동에 대한 학술연구는 물론 우당역사문화강좌, 청소년역사교실, 독립운동사교육연구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독립운동의 업적과 정신을 확산하고 계승하는데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본회는 우당기념관 이전 및 재개관을 축하하는 화환을 전달했습니다. 이에 우당이회영기념관 측에서는 우당이회영기념사업회 이종걸 회장의 이름으로 김자동 회장님과 사업회에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우석대 동아시아평화연구소 주최 학술 심포지엄  
'6·25 전쟁과 이북지역 민간인 학살' 개최



6월 22일, 우석대학교 동아시아평화연구소 주최 학술 심포지엄 '6·25 전쟁과 이북지역 민간인 학살'이 개최되었습니다. 우석대학교 동아시아평화연구소는 피카소의 '한국에서의 학살' 작품 전시를 계기로 동아시아 평화 문제 탐구의 하나로 황석영 작가와 김태우 교수 등을 모시고 한국전쟁 중에 발생한 이북에서의 민간인학살 문제를 다루기 위해 개최한다고 심포지엄을 소개했습니다. 본 사업회에 많은 도움을 주신 서승교수께서 개회사를 맡아주셨습니다.

황석영 작가의 '소설 「손님」과 신천학살'에 대한 기조강연, 한성훈 연세대 연구교수와 김태우 한국외대 교수가 각각 '신천박물관과 한국에서의 학살'과 '한국전쟁 시기 국제민주여성연맹의 북한지역 조사와 신천학살'을 주제로 한 발제와 더불어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김득중 국사편찬위원회 자료조사실장, 최태욱 한반도통일역사문화연구소장, 박소혜 우석대학교 동아시아평화연구소 연구원의 종합토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삼가 명복을 빕니다.  
재일 한국사학계 원로 강덕상 선생 별세**



1923년 관동대지진 조선인학살사건에 대한 독보적인 연구자이신 강덕상 선생께서 6월 12일 별세하셨습니다. 강 선생께서는 재일 한국사학자로 1932년도 경상남도 함양에서 태어나 1955년 일본 와세다대학 문학부 사학과를 졸업한 뒤 메이지대학 대학원을 거쳐 1989년 히토쓰바시대학 교수를 역임해 '재일동포 1호 일본 국립대 교수'로 기록되었습니다.

강 선생님의 주요 저서로는 『관동대진재(關東大震災)』(1975)가 있고, 편서로는 『관동대진재와 조선인』, 『조선』 등이 있습니다. 강 선생께서는 1923년 관동대지진 당시 일제가 조선인을 집단학살 했던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 일본 교과서에 실리게 된 계기를 만드는 큰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저서를 남기신 강 선생님은 1995년 정년퇴직 후 시가현립대 교수를 거쳐 명예교수가 되셨고, 2005년 민단 산하 재일한인역사자료관 초대 관장으로 취임, 2017년 이임하셨습니다.

**차별금지법 대한민국의헌장 정신  
박덕진 「독립정신」 편집위원,  
차별금지법 제정 청원 10만 서명 달성**



박덕진 「독립정신」 편집위원께서 차별금지법 제정 청원을 추진 중입니다. 지난 5월 23일부터 시작한 박 위원의 차별금지법 제정 청원 운동은 10만 서명을 목표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14일 10만 서명 운동을 마침내 달성하였습니다.

박 위원은 차별금지법에 대해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3조 평등권의 선포를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및(及) 빈부의 계급이 무(無)하고 일체 평등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박 위원은 대한민국 임시헌장에 명시한 평등권은 아직 실현이 미완이며, 차별금지법 제정이 평등권 실현을 앞당길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회 소관위원회 회부 기준인 청원 동의 10만 명이 확보되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차

별금지법안 심사에 속도가 붙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차별금지법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높은 상태이며 사회 각계각층에서도 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6월 21일 기준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평등법' 제정을 촉구한 상태입니다.

**당신은 어느 나라 판사인가!  
박덕진·배성호 회원, 김양호 판사 탄핵 청원**

6월 7일, 역사 앞에 부끄러운 판결이 있었습



니다. 서울지방법원 소속 김양호 부장판사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분들께서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낸 개인청구권 소송에 각하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김양호 판사의 '한일관계가 악화되면 미국과의 관계도 나빠질 것'이라는 판결 논지는 과연 대한민국 법조문 어디에 있는지 두 눈을 의심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박덕진 「독립정신」 편집위원은 회원 단체메시지방에 “한일협정에 따라 개인청구권이 소멸했다는 입장을 법리로 끌어다 썼는데, 이는 일본 자민당 정권에서 과거사 배상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내세운 변명에 불과

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김양호 판사가 근거로 제시한 청구권 소멸론은 일본 극우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반민족적 판결이라는 것입니다.

김양호 판사의 '국제사회가 일제 식민지배를 불법으로 보지 않고 있다'는 논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헌법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반국가적·반헌법적 행위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사업회의 많은 회원께서 김양호 판사의 탄핵 청원에 동의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배성호 본회 회원께서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소송을 부당하게 각하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13718 판결에 대한 논평'이라는 공동논평을 단체메시지방에 공유해 주셨습니다.

**임시정부기념관에도 뜻깊은 알찬 전시를~  
배성호 회원,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관람 사진 공유**

본회 회원인 배성호 선생께서 5월 20일 연재



중인 어린이 잡지 「개똥이네 놀이터」 7월호 제헌절 원고 준비를 위해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을 관람하면서 촬영한 사진을 본 회원 단체메시지방에 공유하였습니다. 배 선생께서는 앞으로 건립될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도 뜻깊은 전시들이 잘 구성되어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 문상익과 서대문형무소 48

1919년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전국적으로 이름 없는 수많은 한국인들이 참여하였다. 문상익(文相翊, 1893. 7. 3~1960. 10. 15)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는 경기도 수원군 송산면(지금의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526번지에 살았다. 송산면(지금의 화성시 송산면)은 1919년 3월 26일부터 3월 28일까지 홍면(洪冕), 홍효선(洪孝善) 등이 계획하여 독립만세운동이 크게 일어났던 지역이다. 문상익은 당시 면서기로 면사무소에 근무하면서 지역사람들과 만세시위운동을 계획했다. 3월 28일 정오가 지나자 약 70~80명의 사람들이 면사무소 앞에서 만세를 부르기 시작했다. 동일 오후 2시경 송산면사무소 뒷산과 그

부근에서 홍문선, 홍남후, 홍승한, 홍관후, 이경집, 박춘홍, 민용운, 전도선 등과 다른 1,000여 명의 군중이 함께 국권회복의 목적 아래 태극기를 앞세우고 조선 독립을 외쳤다.

이에 일제 순사부장 야구광삼(野口廣三) 등이 한국인들의 만세 시위를 제지하고 홍면옥 이외에 두 사람을 체포할 때 몸싸움이 일어났다. 이때 야구광삼이 권총을 발사하였는데 총탄이 홍면옥의 등 부분에 명중하였다. 홍면옥은 격노하여 야구광삼을 살해하기로 결의하고 군중들에게 자신을 쏜 순사를 빨리 죽여 달라고 부르짖었다. 이에 문상익은 면사무소에서 나와 홍면옥에게 빨리 야구광삼을 죽이겠다고 대답하고, 왕광



연 등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시위를 이끌며 순사를 죽이라고 군중을 향해 외쳤다.

일본순사 야구광삼이 흥분한 군중들에 둘러싸이며 신변의 위협을 느끼게 되자 그는 오후 3시경 자전거를 타고 송산면 사강리 경찰관 주재소 동쪽 약 60간의 거리까지 도망갔다. 문상익은 야구광삼을 가장 먼저 뒤쫓으며 돌을 던졌다. 이어 왕국신, 차경현, 이윤식, 박춘홍, 황칠성 등이 따라와 함께 돌을 던졌다. 도망가던 야구광삼이 자전거에서 떨어지자 문상익을 비롯한 시위 군중들은 돌과 몽둥이로 머리 부분을 비롯하여 기타 신체 여기저기를 난타하였다. 이로 인해 야구광삼은 뇌진탕과 동시에 골절, 출혈 등이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특히 홍면옥의 장인 김명제는 자기 사위의 원수를 갚고자 순사를 죽일 생각으로 순사가 넘어진 후 자기도 주먹크기의 돌로 야구광삼의 얼굴에 돌을 던졌다고 심문조서에 밝혔다.

일본순사 미택구태랑(尾澤龜太郎)이 작성한 검증조서에는 야구광삼이 살해된 장소는 수원군 송산면 사강리 동쪽 끝 사강경찰관주재소에서 63간 떨어진 곳으로, 머리는 북쪽으로 두고 서쪽으로 떨어져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일제 감정인 안전징(岸田徵)은 야구광삼의 창상은 비교적 뾰족한 끝을 가진 둔기(鈍器), 옆에는 돌, 몽둥이 등의 강타에 의한 두부, 안면에 24곳 등 그 사인은 두부·안면의 부상에 따라 뇌진탕을 일으켜 인사불성에 빠졌고 동시에 골절, 출혈, 뇌질 좌멸(挫滅: 일그러진 상태)이 일어났다고 작

성하였다.

야구광삼의 사망을 통해 당시 일제의 식민통치가 매우 가혹하였고, 한국인들의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 짐작할 수 있다. 이 사건으로 문상익은 치안 방해 혐의, 살인 교사죄 등으로 처벌이 가중되어 징역형을 받고 서대문형무소에서 12년간의 옥고를 치렀다. 송산면 시위를 주도한 사람으로 홍면옥, 왕광연이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데 문상익은 이들과 함께 가장 무거운 형을 받았다. 그 외에 송산면 만세시위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이 10년형, 7년형을 선고받은 것을 보면 문상익이 주동인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남아 있는 그의 수감자기록카드에는 뺨뺨 깎은 머리에 수인복을 입고 옷깃에 이름을 단 사진과 함께 수인번호, 죄명, 집행감옥에 대한 내용만 기록되어 있다. 송산면 사강리 만세운동을 이끈 문상익 애국지사에게는 1977년 건국훈장 국민장이 추서되었다. ㉠



대한민국의 뿌리는 독립운동입니다  
존경과 감사,  
그리고 다짐의 이야기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9 772586 469007  
ISSN 2586-4696